

신 살, MS가 사는 법

경제포커스

이성훈

테크부장



지난달 말 테크업계에 깜짝 뉴스가 전해졌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인터넷 전화 ‘스카이프’의 서비스를 오는 5월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2003년 등장한 스카이프는 인터넷으로 가입자끼리 무료 통화 가능한 서비스를 선보였다. 전통적인 유선 전화 사업을 위기로 몰아넣으며 ‘혁신 기술’의 대명사로 불렸다. MS가 2011년 당시로선 천문학적 돈인 85억달러(약 12조4000억원)에 인수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을 놓치면 혁신도 한순간 구식이 된다. 와츠앱·줌 등 또 다른 화상 통신 서비스에 밀렸다. MS는 매몰 비용을 따지지 않고, 사업을 접기로 했다.

MS가 포기한 과거 유산은 이것만이 아니다. MS는 2022년엔 인터넷 브라우저(인터넷 접속 프로그램)인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원을 종료하기로 했다. MS에 ‘익스플로러’의 의미는 각별하다. 창업자 빌 게이츠가 경쟁사인 넷스케이프를 무너뜨리기 위해 ‘윈도’에 끼워 팔기를 하다 반독점 소송에 걸려 법정에 서면서까지 키우고 지켜낸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경쟁력을 잃자, 과감

히 포기했다.

이런 결단을 내린 이가 사티아 나델라 최고경영자(CEO)다. 나델라는 빌 게이츠, 스티브 발머에 이어 2014년 MS의 세 번째 CEO로 취임했다. 그가 쓴 책 ‘히트 리프resi’를 보면 취임 때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이 나온다. “우리 업계는 전통(tradition)을 존중하지 않는다. 오직 혁신(innovation)만 존중한다.”

MS는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다 절벽으로 내몰린 ‘공룡 기업’의 위기 탈출

‘윈도’ 성공에 안주하다 위기 실패 용인하는 조직 문화로 바뀌 이후 사업 구조 혁신하며 성공 실패에서 성공의 길 찾는 게 리더

법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나델라 취임 이전 MS에는 관료주의 문화가 깊고 넓게 퍼져 있었다. PC가 팔리면, 윈도 사용료가 꼬박꼬박 들어왔다. 애플의 아이폰이 등장했을 때 발버는 “자판도 없고 비싼 스마트폰을 누가 사겠는가”라고 비웃었다. 아이폰 열풍이 불었을 때, MS는 내부 혁신 대신 노키아의 휴대전화 사업 부문을 약 54억유로(약 8조원)에 인수하는 방법을 택했다.

그때 분위기를 나델라는 이렇게 전했다. “대부분의 직원이 MS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고, 혁신 역량을 갖

췌는지의문을가졌다. 직원들은피로감과 불만을 느꼈다. 큰 꿈을 안고 MS에 입사했지만, 실제로는 고위층비위를맞추고, 회의를 하느라 지쳐갔다.”

나델라가 취임 후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하나는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었다. 수많은 성공 스토리를 가진 MS에는 당시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다. 나델라는 “완벽을 추구하기보다 빠르게 시도하고, 실패에서 배우자”고 독려했다. 그리고 실패에서 혁신의 길을 찾았다. 윈도폰이 고전하자, 나델라는 4년 만에 사업을 접었다. 그때 MS는 ‘윈도’를 중심으로 한 폐쇄적 사업 생태계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델라는 그 내용을 이메일과 직원 간담회를 통해 솔직히 털어놓고 공유했다. 그렇게 새로운 주력 사업으로 삼은 것이 클라우드(가상 서버)였다. 윈도폰에서 빠지면 실패를 경험한 인재들이 이 사업에 투입됐다. MS는 지금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이 클라우드에서 벌어들이며, 사업 구조를 바꾸는 데 성공했다.

올해 설립 50년을맞은 MS는 미국 기업사총액 순위에서 애플에 이어 2위다. 나델라 취임 전 MS 시가총액은 당시 환율로 약 335조원으로 삼성전자(약 200조원)의 1.6배였는데, 지금은 시총 약 4200조원으로 삼성전자(약 324조원)의 13배쯤 된다. ‘실패의 축적’에서 성공의 길을 찾는 게 리더의 몫일 것이다.

윤주의 이제는 국가유산 [22]

딜쿠샤에 봄 햇살이 드리우니

사직터널 위 커다란 은행나무 옆에는 ‘딜쿠샤(Dilkusha)’라 불리는 붉은 벽돌집이 있다. 미국인 앨버트 테일러(1875~1948)와 그의 아내 메리(1889~1982)가 일제강점기에 살던 집이다. 3·1 만세운동이 들불처럼 일었던 이즈음 ‘기쁜 마음’이란 뜻의 딜쿠샤가 더욱 깊이 다가온다.

앨버트는 광산 기술자인 아버지를 따라 우리나라로 와 광산과 테일러상회 등을 경영한 사업가이자 언론인이다. 일본에서 만난 메리에게 호박 목걸이를 선물하며 인연을 맺고 1917년 인도에서 결혼했다. 인도 여행을 하며 본 아름다운 궁전을 마음에 품고 훗날 딜쿠샤를 지었다고 한다.

메리는 일기와 사진과 그림을 구슬 꿰듯 엮어 사랑의 징표인 ‘호박 목걸이’를 제목으로 회고록을 남겨 놓았다. 메리 생전에 출판하지 못했지만, 아들 브루스가 어머니의 유고를 출간해 딜쿠샤가 품은 사연과 당시 모습을 정성껏 담아내었다.

브루스는 1919년 2월 28일 세브란스 병원에서 태어났다. 그 즈음 앨버트는 AP 통신원으로 임명된다. 간호사가 수색을 피해 병실 침대에 몰래 숨겨 놓은 독립선언서를 발견해 기사를 작성했다. 동생 윌리엄이 이 기사를 구두 뒤쪽에 숨겨 전하면서 3·1 독립선언이 전 세계로 전파됐다. 그 이후에도 제암리

학살 사건 등을 취재하며 독립운동가를 도왔다.

테일러 부부는 산책하다 전망 좋은 곳에 자리한 은행나무에 반해 집을 짓기로 결심한다. 1923년에 첫 삽을 떠 1924년 봄에 완공했다. 테일러 부부는 20여 년을 딜쿠샤에서 살다가 1942년 외국인 추방령으로 강제 추방되어 미국으로 갔다.

딜쿠샤는 ‘귀신 나오는 집’이라고도 불리며 모습을 점차 잃어갔다. 2006년 브루스가 어린 시절 살던 집을 찾으며 다시 알려지게 되었다. 유족이 기증한 유물과 사진을 참조하며 복원이 진행되었고 브루스도 ‘은행나무 옆의 딜쿠샤’를 출판했다. 딜쿠샤는 ‘서울 앨버트 테일러 가족’으로 국가유산이 되었고, 은행나무는 ‘관음장군 집터’ 표시석을 앞세운 보호수가 되었다.

우리나라를 사랑한 테일러 부부의 기쁜 마음으로 일일이 꿰어낸 딜쿠샤는 진정 메리가 바라는 ‘희망의 궁전’이 되었다. 그 그윽한 눈길을 닮고파 딜쿠샤 창가에서 봄 햇살 받은 은행 나무를 보러 가야겠다.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자연유산위원



※영상 QR코드

社 説

‘한미 원전 동맹’ 모델, 트럼프 시대 돌파구 될 수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첫 의회 연설에서 “한국은 평균적으로 우리보다 4배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우리가 군사적으로 도와주는 데도 이렇다”면서 한국을 언급했다. 트럼프는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 수천억 달러 보조금을 주는 반도체 지원법은 없어야 한다” “알래스카주 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 등이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등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말을 쏟아냈다.

물론 트럼프의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 한미 FTA로 인해 미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관세율은 대부분 0%다. 전 세계 대상 한국의 평균 관세율이 13.4%인데 이를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 간 협상 과정에서 이를 납득시켜야 한다.

반면 미 반도체 지원법에 의한 보조금 지급 폐지는 심각하다. 바이트 정부의 보조금 지급 약속을 믿고 삼성전자가 370억달러, SK하이닉스가 38억달러를 투자하는 대가로 각각 47억달러, 4억5800만달러의 보조금을 받기로 돼 있는데, 이게 없던 일이 될 수도 있다. 거의 국제 사기와 같은 행태이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피해 최소화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다. 미국이 중국 반도체 굴기에 민감한 만큼 중국에 있는 한국 반도체 라인 폐쇄, 고성능 AI(인공지능)

美 국방차관 후보 “韓 정치로 한·미·일 협력 불분명”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후보자가 4일 미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에 대해 “지난 6~8개월간 한국의 정치적 역학 관계를 고려하면 그 파트너십이 계속될 수 있을지 분명하지 않다”고 했다. ‘아시아판 나토가 가능한가’란 질문에 답하면서 나온 말이다. 한마디로 ‘한국 정치의 불안정성’ 때문에 더 폭넓고 지속적인 협력은 어렵다는 얘기다. 콜비가 말한 ‘지난 6~8개월’을 역산하면 대략 지난해 하반기부터다. ‘여소야대’의 제22대 국회가 출범한 후 도미노처럼 벌어진 더불어민주당의 폭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대통령·국무총리 출탄핵 등을 모두 염두에 둔 말일 것이다.

특히 미국 측이 주목하는 것은 민주당의 반미 친중 성향일 수 있다. 최근 국내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처음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윤 대통령이) 소위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 북한과 중국·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사전 투표 대신 본투표 2~3일 늘리는 방안 검토를

국민의힘 의원이 사전 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일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선거 5일 전부터 2일간 하던 사전 투표 대신 본투표를 주말 포함해 3일간 하자는 것이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를 위해선 부재자 투표를 부활화하고 했다.

사전 투표제를 2014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돼 투표율을 올리는 데 기여했다. 선거일을 휴일로 사용할 수 있고, 사전 투표는 별다른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했기 때문이다. 총선 기준으로 2008년 46.1%까지 하락했던 투표율은 2016년 58%로 올랐고 작년엔 67%를 기록했다. 최근 대선·총선에서 사전 투표 비율은 50%에 육박한다.

그런데 도입 10년이 지나면서 여러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 선거에선 본투표에 임박해 후보 단일화 등 대형 이슈가 자주 발생한다. 본투표 직전에 후보에게 심각한 문제가 노출될 수도 있다. 사전 투표한 사람은 이런 사정 변화를 전혀 반영할 수 없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일 6일 전부터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하는

메모리 한미 공동 개발 등을 협상카드로 검토해 볼 수 있다.

한국의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 참여는 실패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지만, 성공하면 질 좋고 값싼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처를 확보할 수도 있다. 환경 규제와 높은 법인세 문제 등을 미 정부가 해결한다는 전제 아래 일본과 공동 추진으로 위험을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트럼프가 의회에서 “특별 세금 감면을 도입해 미국 조선 산업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말한 것은 한국 조선 산업에 희망을 주는 발언이다. 트럼프는 미국 해군 재건과 미 조선 산업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여기에 한국이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한미 간 조선 상생 모델을 만들면 대미 통상 협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미 원전 기업들이 해외 원전 수출에 힘을 합치기로 한 ‘한미 원전 동맹’은 트럼프 시대 한미 관계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한국은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이고 미국은 최고의 원전 기술과 시장, 막강한 군사 외교력을 갖고 있다. 조선·반도체·에너지 분야에서도 원전 동맹과 같은 상생 모델을 만들 수 있다면 트럼프 파고를 헤쳐가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미국 정책 담당자들은 이 놀라운 내용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이것이 이제껏 대표의 생각인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한국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국 정부의 한·미·일 협력에 대한 입장이 크게 바뀌는 것을 계속 경험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미국이 공들여 성사시킨 한·일 위안부 합의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파기한 것은 한 예다. 2016년 체결된 한일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도 문 정부 출범 후인 2019년 파기 직전까지 갔다가,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압박으로 겨우 유지됐다. 이후 윤 정부가 출범해 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한·미·일 협력이 궤도에 올랐지만 이번에는 계엄과 탄핵 사태가 벌어졌다. 미국이 한국 정치와 민주당을 불신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일이 필요하다. 하지만 트럼프의 계산은 예측하기 어렵다. 만약 한국에서 본격적인 반미 친중의 신호가 나오면 한미 동맹은 그야말로 풍전등화가 될 수 있다.

데 사전 투표는 선거일 4~5일 전에 실시된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안철수 후보 간 단일화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이뤄졌다. 본투표 유권자와 사전 투표 유권자 간에는 정보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모든 유권자는 동등한 환경에서 투표해야 하지만 사전 투표는 실질적 선거운동 기간이 4~5일 단축된다.

투·개표 관리도 어렵다. 사전 투표는 주소지 외에서 투표하면 투표지를 우편으로 주소지 개표소로 보내게 된다. 우체국이 그 관리를 맡는데, 이 과정은 선관위도, 투표 참관인도 감시할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이다. 국민의 불신과 불안이 생기는 부분이다. 투표지는 한시라도 관리 사각지대에 두어서 안 된다.

사전 투표를 하면 선거일을 온전히 휴일로 쓸 수 있어 국민 선호가 높다. 투표율 제고는 사전 투표의 거의 유일한 장점이다. 하지만 사전 투표가 아니라도 본투표일을 2~3일로 늘리면 마지막 투표일 하루를 휴일로 사용할 수 있다. 투표율도 올리면서도 불필요한 의혹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당 간에 유불리가 있을 리도 없다. 이 방향으로 투표제 개선을 검토했으면 한다.

음모·공작, 난무한다

뭐? 8 대 0 탄핵? ... 비(非) 좌파 재판관들, 이런 선전·선동·협박 물리쳐라!

《음모꾼들+선동꾼들+여론몰이꾼들》 장난질 | 가짜 뉴스로 대중 흥분시키고 《개헌몰이》 선동 | 《윤석열 자진 퇴임》 기정사실화 시키려는 꼼수

《홍악한 설(說)》 난무

지금 무슨 음모와 공작을 꾸미고 있는가? 돌아가는 분위기 가 어찌 심상치 않다. 헌법재판소 내부의 판세가 (4 대 4)니, (5 대 3)이니 하더니, 어제오늘 들어선 이들 (8 대영)으로 만들려 한다는 소리가 들려온다.

이따위 소문은 물론 전혀 신빙성이 없는 가짜 뉴스일 것이다. 그러나 (비(非) 좌파 헌법재판관)들의 심리를 압박하려는 《음모꾼들+선동꾼들+몰이꾼들》의 장난질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이르기 까지, 모든 홍측한 일들의 원흉은 《가짜 뉴스 제작자·유포자》였다. 이들은 《직업 혁명가+기회주의·상업주의 미디어+대중문화》의 모습을 했다. 이들은 허구를 실재인 양 만들어 판다

대중은 그걸 읽거나 보고서 흥분한다. 광장에 나가 촛불을 든다. 선동꾼들은 그것을 활자나 영상으로 증제한다. 이걸 읽거나 보고서 대중은 더 흥분한다. **덕, 덕, 덕**

마침내 《우파 대통령들과 정권들》이 줄줄이 쫓겨나고 무

좌 파				중 간 파	우 파		
 송승현(58) 연수원 18기 서울대 법대 지명 문재인 대통령	 이혜연(54) 연수원 26기 부산대 법대 지명 문재인 대통령	 최계선(55) 연수원 27기 서울대 법대 지명 윤석열 대통령	 김병수(61) 연수원 29기 서울대 정치학과 지명 윤석열 대통령	 김형두(59) 연수원 18기 서울대 법대 지명 김경수 대법원장	 최경미(55) 연수원 25기 부산대 법대 지명 김경수 대법원장	 황석(63) 연수원 17기 서울대 법대 지명 윤석열 대통령	 이복형(56) 연수원 24기 서울대 법대 지명 조희대 대법원장

▲ 《8 대 0》은 기만술수다. 우파-중간 재판관들 휘둘러면 안된다. © 뉴데일리

너진다. 그럴 때마다 혁명은 **덕, 덕, 덕** 과격화해지고 좌(左)로 갔다. 자유체제와 자유국가가 폭삭 망할 때까지.

《조기 대선》 굳히려는 꼼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이 공작은 100% 먹혔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는 4%까지 떨어졌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땀 완전히 달았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가 50%로 뛰었다. 3.1절 쫓기 때 수십만 자유인들이 서울을 덮었다. “사기 탄핵 반대!” “윤석열 대통령 석방!” 거짓이 전혀 먹히지 않았다.

이에 가짜 뉴스 제작·유포자들은 바짝 쫓았다. “**어, 안 속네!**”

그렇다고 쉽게 포기할 리는 없다. 이들은 마지막 퍼를 부리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 개헌》을 자기들 나름으로 억어용하는 수법이다. “**좋다. 개헌하자. 조기 대선 하자!**”

윤 대통령 임기도 단축하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가 안 돼도 《윤석열 조기 퇴임이면 괜찮은 장사》라는 것이다.

저들은 《윤석열 탄핵 미수(未遂)》를 《윤석열 자진 퇴임》으로 대신하려 한다. 전술 변경인 셈이다. 작전 수정(修正)인 셈이다. 저들은 퍼뜨렸다.

“**윤 대통령이 조기 퇴임을 약속하라. 그것으로 탄핵 기각을 구걸하라.**”

힘내라, 정형식·이복형·조한창 ... 결단하라, 김형두·정정미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자유 국민은 이를 걸어쳤다. 위대한 《3.1절 자유 국민 저항 운동》으로 세계 받아쳤다.

이에 저들은 단발마의 최후 발악을 하기 시작했다. ① 《8대 영탄핵 인용설》로 이게 마치 대세인 양, 대서특필한다. 현재의 비(非) 좌파 재판관들을 겁박하는 수작이다. ② 《개헌은 의·내각제=이원집정부제》를 일제히 퍼뜨린다. 기득권 《**국(國)발+공공**》들끼리 《**재왕적 국회 권력**》을 나눠 먹자는 계략이다

현재의 정형식·김형두·김복형·조한창 재판관들에게 고한다. 무엇이 더 중한가? 코앞의 위험인가. 긴 역사의 안목인가? 성찰하라, 선택하라, 결단하라! 3.1절 국민 대투쟁을 돌아보라! 《**좌익 + 기회주의 배신자들**》의 꼼수를 물리쳐라!

류근 일 뉴데일리 논설교련 / 전 조선일보 주필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집필으로 2025년 3월 5일 게재 되었습니다.



NO. 136 뉴데일리 칼럼 프린트 버전 시리즈

뉴데일리 콘텐츠를 지원해주세요

뉴데일리를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7-880570 뉴데일리(주)